

기후부, 호남권 신규 반도체 산단 조기 전력공급 추진

- 호남권 반도체 산단 '30년까지 조기 전력공급 추진
- 한전 「메가프로젝트 전력망 적기건설 추진TF」 구축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7월 8일 오후 이호현 제2차관이 세종청사에서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와 호남권 신규 반도체 산단 조기 전력공급 방안을 논의하고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월요일 호남권 반도체 산단 입지가 광주 군공항으로 확정됨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0년까지 조기 전력공급을 위해 한전 공용망과 산단을 연결하는 신규 공급선로 조기 구축방안 및 지자체, 관계부처 협조 필요사항을 논의하고 한전의 대응체계를 점검한다.

이날 회의에서 한전은 3대 메가프로젝트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김재군 전력계통부사장을 팀장으로 하는 「메가프로젝트 전력망 적기건설 추진TF」를 구성하였으며, 시공 및 조달 혁신 등을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시점 이전에 전력공급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호남권의 경우, 재생에너지, 원전 등 발전력이 풍부하여 대규모 전력수요 입지에도 안정적 전력공급이 가능한 만큼, 반도체 산단 전력공급을 위한 별도 신규 지역간 융통선로는 불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재생에너지 변동성에도 반도체 공장에 24시간 안정적 전력공급이 가능하도록 융통선로 현황과 향후 계획도 점검한다. 우리나라 전력계통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 지역 내 발전력이 넘치거나 부족하면 지역간 융통선로를 활용하여 보완이 가능한 만큼, 전국단위로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송변

전설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아울러 안정적 전력공급을 뒷받침하기 위한 신규 에너지저장장치(ESS)와 양수발전도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

이호현 제2차관은 “첨단 반도체 공장의 핵심 경쟁력은 안정적이고 신속한 인프라 확보에 있다”고 강조하며, “반도체 산단이 호남권의 풍부한 무탄소 전원 인프라를 기반으로 첨단산업과 지역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거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전력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구축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 회의개요. 끝.

담당 부서 (총괄)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망정책과	책임자	과 장	서성태 (044-203-5120)
		담당자	사무관	박성열 (044-203-5123)
			주무관	김훈경 (044-203-3939)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산업정책과	책임자	과 장	강경택 (044-203-3880)
		담당자	서기관	안준호 (044-201-3881)



1. 회의 개요

- 배경 : 메가프로젝트 적기 전력공급 방안 논의
- 일시/장소 : '26. 7. 8(수) 15:30~16:30 / 세종청사 13동 557호
- 참석자
 - (기후부) 2차관, 전력망정책국장, 전력망정책과 등
 - (한 전) 전력계통부사장, 송변전건설단장 등

2. 일정 계획

시 간	주요 내용	비고
15:30~15:35 5'	■ 인사 말씀	기후부/한전
15:35~16:25 50'	■ 논의 및 토론	참석자
16:25~16:30 5'	■ 마무리 말씀	기후부